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심을 응용한 모자 디자인 연구
- DTP를 이용한 수공예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섬유디자인전공

이 정 은

동심을 응용한 모자 디자인 연구

- DTP를 이용한 수공예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섬유디자인전공

이 정 은

인 준 서

이정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패션은 의복과 장신구를 총괄하는 말로써 단순히 의복을 입는다는 개념 이외에 치장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모자는 의복의 외관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신체를 보호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계급이나 신분표시, 종교적 권위를 상징, 장식 욕구의 표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 동시대의 패션과 함께 변화해왔다.

오늘날 단순화된 의복은 액세서리에 의한 다양한 연출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라는 아이템에 주목하였다. 모자는 장식성이 강조된 조형요소로서 현대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자는 인체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에 착용되므로 복식요소 중 시각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으로 패션발전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모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개인의 외모에 뚜렷한 분위기를 갖게 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이상적 매체로써 모자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렇듯 많은 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모자의 의미는 남다르다.

1900년대 이후 시대별로 모자디자인의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계속 변화해왔고, 21세기 지금 통념적인 모자의범위에서 벗어나 감성을 들어내는 방법으로 재해석 해보려한다.

본 연구에서 동심이라는 모티브를 모태삼아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디자인하였다. 동심이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감정이지만, 연륜에 묻혀버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감성마케팅에 수공예적인 작업방식이 어우러진 다품종소량생산 이야말로 현대사회에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라 믿어본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 론	3
1. 이론적 배경	3
1) 모자의 역사적 흐름	3
2) 모자와 패션의 연관성	6
3) 모자의 상징성	10
2. 작품제작 및 분석	13
1) 작품제작	13
2) 작품 분석	24
3) 상품 판매 전략	52
III. 결 론	60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기억 I · II, 2006	31
[작품 2] 바라보기 I · II, 2006	35
[작품 3] 인 연 I · II, 2006	39
[작품 4] 연 가 I · II, D T P, 2006	43
[작품 5] 보고 싶다, 2006	47
[작품 6] 꿈, D T P, 2006	49
[작품 7] 순수, 2006	52
[작품 8] 봄을 기다립니다, 2006	55

도 판 목 차

<도판 1> 조가비 모양의 모자	4
<도판 2> 물고기 모양의 모자	4
<도판 3> 토리아	7
<도판 4> 에빙 모자	7
<도판 5> 프랑수 자수	8
<도판 6> 실크 햇	11
<도판 7> 멜론 모자	11
<도판 8> 2007 F/W Trand Color	19
<도판 9> 해바라기	54
<도판 10> 양무새	54
<도판 11> 베네치아 가면	54
<도판 12> 꽃, 나비	54
<도판 13> KAORY 매장전경	56
<도판 14> COMBLE 매장전경	57
<도판 15> LUIELLE 매장전경	58

I. 서론

1. 연구 목적

변화가 빠른 21세기는 실질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패션제품의 질적인 추구하고 개성화가 점점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의 패션관심도 역시 통신매체나 잡지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세계적 패션의 문화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코드는 바로 '과거로의 회상'이라는 키워드이다.

이에 설 세 없이 변화하는 21세기에서는 미래적 경향과 복고적 경향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기반 하여 새로운 감각의 패션디자인이 개발되고 있지만 해외 트렌드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에 기반 하여 서구와 동시에 변화하는 한국패션의 유행경향을 되짚어, 소비자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감성의 차별화, 독창성을 새로운 감각의 패션상품디자인개발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동심(童心)'이라는 문화적 코드와 모자의 조형적·상징적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아이템인 모자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동심이라는 모티브를 이용한 본인의 작업은 21세기 현대적 트렌드인 ‘과거로의 회상’에 맞추어 아름답고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자유로운 감성은 빠른 변화에 지친 현대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감성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심에 담긴 상징적의미를 모자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제작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표현방법은 디지털텍스타일 프린팅 (Digital Textile Printing)과 수공예 작업이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작업을 통해 동심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모티브를 이용해 만든 패턴을 디지털화시켜 기존의 아날로그 프린팅의 번거로움을 줄인 디지털텍스타일 프린팅 (Digital Textile Printing)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다양한 원단디자인과 함께 모자제작을 위한 연구도 함께 되었다.

동심이라는 모티브를 모자디자인에 더욱 감성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수공예작업이라는 패션의 가장 모태가 되는 작업방식을 동반하였다.

손바느질, 뜨개질, 자수, 패치워크 등의 감성적 방법을 다양한 부자재와 함께 표현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모자의 역사적 흐름

모자는 세기의 패션액세서리이다. 이는 모자가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시대로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체를 장식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미적욕구를 충족시켜왔다. 모자는 자연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풀, 깃털, 나뭇잎을 머리에 꽂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질 때부터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과거 모자는 권력이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 소속, 사상적 특성과 계급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사건을 반영하기도 하였다.¹⁾ 특히 고대부터 근대까지는 모자가 필수적으로 착용되었던 시기였으나, 20세기 초기는 패션학자인 수지홉킨스(Susie Hopkins)로부터 ‘모자에 대한 열광의 시기(Crazy about hat)’라 불릴 만큼 개성화, 다양화되었다.

이렇듯 20세기는 2)아르누보. 3)아르데코. 4)다다이즘. 5)미니멀리즘 6)미래주의

1) Browyn Corsgrave, Costume & Fashion, (Checkmark Books, 2000), p.29.

2) Art Nouveau: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건축, 공예에 나타난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 형식의 미술양식

3) Art Deco: 1920년대에 시작하여 1930년대에 서유럽과 미국에서 주된 양식으로 발달한 건축과 장식 미술

4) Dadaism: 20세기 초반 취리히와 뉴욕, 베를린, 파리 및 독일의 하노버 등지에서 활발했던 허무주의적 예술운동

5) Mini-malism: 1960년대 말 주로 미국 뉴욕 시에서 시작된 시각예술과 음악분야의 운동

6) Futurism: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예술운동의 한 경향

7)옵아트. 8)입체주의. 9)팝아트. 10)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모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성적인 모자가 착용되기 시작한 1900년대 초 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두드러진 모자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에는 초현실적인 예술양식과 기능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디자이너 샤넬은 초현실주의를 모자에 반영하여, <도판 1>조가비 모양의 모자와 <도판 2>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선보임으로써 해변에서의 생활과 수중생물을 초현실주의 버전으로 나타냈다. 샤넬 뿐 만아니라 그 시대를 샤넬과 함께 풍미했던 프랑스의 디자이너 엘자 스키아파렐리에게도 영향을 줌으로써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도판 1>



<도판 2>

1960년대에는 우주 개막시대로, 앙드레 쿠레주(1960년대 프랑스의 디자이너)와 피에르 카르탱(이태리 출신의 디자이너)에 의해 미래지향적인 의복과 함께 헬멧이나 우주비행 모자가 소개되었다.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7) OpArt: 20세기 중엽에 국제성을 띄었던 기하학적인 비구상계열의 미술양식

8) Cubism: 20세기 초 회화와 조각, 문학과 음악 등 다방면에 혁명을 일으킨 전위예술운동

9) Pop Art: 1950년대 후반부터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예술현상

10) Post Modernism: 모더니즘의 거부, 반작용으로 생겨난 문학, 예술의 한 경향

미래지향적인 형태와 특수소재로 제작된 모자를 등장하게 하였다. 이 시대 대표적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은 이전시대 화가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음으로써 기하학적인 무늬와 프린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른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니는 것이 유행함으로써 모자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이시기부터 디자이너들에 의해 개성 있는 연출을 위한 액세서리로 착용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모자들은 더 자유롭고 대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미래세계와 과거에의 향수가 공존하는 분위기와 과거에의 향수를 자아내는 조화를 보이고 있다. 또 장식을 중시하고 실루엣을 과장시킨 조형적인 모자와 클래식하거나 스포티한 감각에 여성적 요소가 가해진 모자의 모드가 유행하였다.

2000년대부터 현재는 레트로(Retro)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레트로(Retro)란, '레트로 그레시브(Retrogressive)'의 축약된 용어로 이전시대 특유의 스타일로 회기하는 복고적 모드를 말한다. 레트로 경향은 사회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패션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2007 S/S컬렉션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머리쓰개를 재현하기도 하며, 비즈를 이용한 수공예적인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테러 등에 의해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고픈 심경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2) 모자와 패션의 연관성

(1) 연관성

복식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신체 전 부분을 감싸고 장식하며 기능, 조화, 상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 되면서 액세서리와 단품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기성복이 일반화 되자 헤어스타일, 모자, 메이크업 등의 신체의 자유로운 부분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증폭되었다. 또한 머리카락, 손 등의 신체 가장자리의 변화는 신체 중심부의 변화보다 큰 시각적 무게로 시선을 유도하며, 신체의 가장 위에 위치하며 머리를 피복하는 모자 아이템은 복식과 매우 중요한 연관을 띠고 있다.

20세기 동안 모자는 계급상징의 역할로 외출 시 필수 아이템 역할을 하고, 토탈 패션의 유기적인 통일감과 전체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로 올수록 젊은 층에게는 패션을 완성하는 표현적인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행에 민감한 집단에서는 의상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술성을 시도하는 등 의미와 역할에 있어 다양한 재해석이 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조형적 변화를 가져왔다.¹¹⁾

이렇듯 시대별 패션변천사는 모자디자인 경향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11) 금기숙 외 9인, 패션큰사전, (서울 : 교문사, 1999), p.133~135

(2) 시대별 흐름

고대 그리스에는 복식과 더불어 머리 형태에도 관련되어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머리를 즐겨 해 가리개용의 히마티온(Himation: 고대 그리스에서 1장의 큰 모직물 천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녀가 두루 입은 겉옷), 페플로스(Peplose: 기원전6세기 무렵부터 여성들이 착용한 고대 그리스의 의복)를 쓴 위에 <도판 1>토리아(Thoria: 원뿔 형의 작은 모자)를 썼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새로운 양식의 모자가 나타나고 있다. 의복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슬래쉬(slash)를 들 수 있는데, 그 경향은 모자와 구두에까지 나타났다. 또한 이 시대에 모자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길고 높은 <도판 2>에닝(hennin: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 사라지고 챙이 없으며 머리에 꼭 맞는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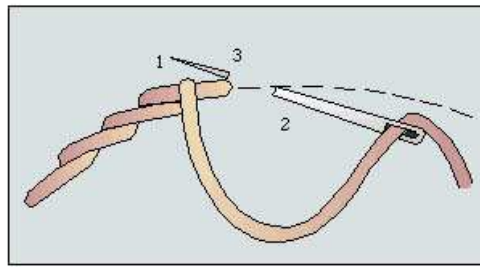
<도판 3>



<도판 4>

17세기 바로크패션은 불규칙적이고 열정적인 감각으로 장식이 조화가 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장식성이 과장되게 표현되었다.¹²⁾

장식과잉으로 리본, 레이스가 남용되었고, 의상에는 화려한 <도판 5>프랑스 자수가 이용되었다. 가발의 유행으로 모자의 사용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모자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다. 18세기까지의 패션과 모자는 실용적이기보다는 장식적인 용도로 더 많이 착용되었다.



<도판 5>

1800년대 후반에는 귀족풍의 조이고, 부풀리는 형태의 복식이 유행하였고, 여기에 뺨을 감싼 넓은 리본으로 턱 아래나 뺨 옆에서 묶어 고정 시키는 브림(Brim:챙이 있는 형태의 모자디자인이 나타났다.¹³⁾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의상이 간소해지고 대담한 변혁과 함께 모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사교용으로 착용되었다. 19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패션계의 라인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스커트는 길어졌고, 옆이나 뒤에 플레어를 달고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라인으로 변함에 따라 모자의 라인도 변하기 시작하여 이마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형태가 유행되었다.

2007년 현재는 패션 계는 ¹⁴⁾유니섹스 풍조가 나타났고, 개혁적이고 개방적

12) Jody shields, Hats a stylish history and collector's guide,(New york: clarkson potter, 1991), p.32~39

13) Madeleine Ginslourg,The hat-trend and traditions, (Foreword by hardyamies,1990), p.114~115

인 미래 지향적 성향과 더불어 과거에의 향수를 자아내는 조화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패션 뿐 만아니라 희소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려는 모자패션 역시 변화하고 있다.

14) Uni-sex:복장의 남녀 차가 없어지는 현상

3) 모자의 상징성

(1) 권력과 특권

모자란 가장 인위적인 동시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지만 패션계의 모든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다. 이러한 모자는 권력의 상징으로 행사와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권력의 상징은 왕관이었다.

특히 왕관을 나타내는 크라운(crown)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며, 종교인들의 모자는 종교사회내의 서열과 권위, 신앙을 나타내고, 일반인들의 모자는 그들의 종교, 직업, 계급, 성별, 분화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기호로서의 계급을 상징하는 역할을 일컫는다. 모자의 조형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서양의 18세기 말부터 상류층들의 모자는 개개인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아이템 이였기에, 복식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¹⁵⁾

그 중 왕관은 실용성과 경제적인 면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 쓸 수 있는 대체물이 요구되었는데, 모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권력과 특권을 나타내던 의례용 모자(Corn-chef)를 상위계층은 초상화의 초벌을 그럴 때 에도 꼭 쓰고 있었다. 남성용인 벨벳의 평평한 모자와 여성용인 머리쓰개는 그들이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사회적 인지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18세기 초에는 꽃 모양 기장이 달린 모자들이 상급하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상징으로 착용되었는데 아직도 유명호텔의 제복을 입은 수위들이 착용하고 있다. 또 18세기 특징적이었던 삼각모는 유럽의 귀족, 궁인들, 중산층, 성직자 그리고 장인들이 썼던 미를 뿜내기 위한 도시형 모자이기도 했다. ¹⁶⁾

의례 행사 때나 유니폼 복장에는 삼각모를 변형하면서 탄생된 이각모

15) 임원자, 이순원 공저, 복식디자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p.103

16) Rasara,Accessory, (Rasara Publishing co, 1992), p.17~22

(Bicorne)가 도입되었는데, 이 모자는 감성보다는 절제를, 아름다움보다는 권력과 엄숙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각모가 나폴레옹의 모자가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19세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기차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 중용성이 철도청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복과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 예로 1930년대까지 영국역장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교계의 중요한 인사가 역을 올 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원통형의 높은 크라운과 좁은 천으로 이루어진 견제플러시라는 섬유로 만들어진 <도판 2>실크 햇(Silk hat)을 착용하였다. 19세기 내내 실크 햇은 권력을 상징하는 모자였다. 자유업에 종사했던 정치인들, 스스로 신사라 생각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장례식을 주선하는 사람들도 엄숙하게 보이도록 이 모자를 착용하였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모자는 권력과 복종을 상징했으며, 군인의 모자(Courve-chef)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착용되었다.



<도판 6>



<도판 7>

<도판 7>멜론(Chapeau melon)모자는 형태가 우습긴 했으나, 오랫동안 권력

을 상징하는 남성패션에서 주된 액세서리였다. 이 모자는 20세기까지 재정가와 사업가들이 착용한 모자로 권력을 상징하는 한편, 꺾여버린 과거의 위엄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기도 했다. 원래 메론 모자는 들판에서 일하던 하인이나 일꾼들을 위한 것 이었다.

그리스와 로마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될 때 쓰곤 했던 원추형의 부드러운 피리지언 본넷(Pyrigian bonnet)은 전통적으로 “자유의 모자”라고 불렸다. 피리지언 본넷은 침입을 상징하는데 부정적으로는 사회파괴를 긍정적으로는 규칙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통일을 이룩한 가리발디(Garibaldi)는 둥근 톱 모양의 펠트 모자를 이성과 독립의 상징으로 삼았다. 또 이 모자는 이상주의자들이 상징처럼 되었으며 당시 현상들을 타파하고 부르조아 계층에 대항하며 예술적인 신념을 재비판할 과제를 지닌 화가나 시인들이 선호하는 모자이기도 했다.

(2) 종교와 신앙심

모자들은 대부분 장식이 없고, 어두운 편이며, 하늘을 향한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자의 윗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만들었다.

이 모자들은 거룩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모자와 구별된다.

장식을 완전히 배제한 터키승려들이 쓰는 모자는 순결함과 승려의 얼굴에서 떠오르는 종교적인 체험을 상징한다. 이 터키모자에서 상징되는 고요함과 엄숙함은 교황의 모자인 미트르(Mitre)의 힘과 티벳 승려의 모자에서 보이는 단순함의 멋 속에서 되찾을 수 있다.

또 현대 모자디자인 중 가장 상징성이 독특한 것은 래스터 패리언(자마이카의 종교집단)의 거대한 베레모였다. 자마이카에서 일어난 이 래스터 패리언 등은 1930년 이디오피아 황제가 된 Halie Selasse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 운동은 종교적이자 문화적인 움직임 이었다.

따라서 이 모자는 유대인들의 모자처럼 패션모자가 아닌 종교적인 모자이다.

2.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1)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념과 특징

유행성이 중요한 패션산업에서 텍스타일디자인에 의해 패션이 존재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텍스타일디자인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나 색상을 직물에 짜 넣거나 표면장식을 직물에 나타내기 위해 기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조형 활동을 말한다. 텍스타일디자인에는 예술성, 가공성, 시장성이 필수적이며, 원료, 섬유, 실, 조직 및 가공의 신상품 뿐 만아니라 텍스타일디자인의 시간성, 시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소비자들은 감성 및 욕구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물에 감성을 표현하고 고급화시키는 텍스타일디자인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감성에 맞는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텍스타일디자인은 형, 색채, 배색, 여백, 재질 등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것으로 매우 복잡하다.

17)모티브의 형태와 특징, 레이아웃(Layout), 색채조화 등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감성효과를 달리 나타내므로 모티브의 크기, 모티브간의 방향대비, 반복배열기법, 모티브와 배경의 면적비 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티브의 크기의 경우, 작은 모티브보다는 큰 모티브가 더욱 심미적 감성을 나타내었으며, 무늬의 반복배열의 경우 4분할 반복패턴을 봤을 때 비반복이나 2분할 반복패턴을 보았을 때보다 더욱 화려하며 눈에 띄고 사치스러우며 강렬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Davis(1987)는 텍스타일디자인에서 모티브의 선, 방향, 크기,

17) 임원자, 이순원 공저, 복식디자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p.118

형, 여백 등의 요소를 조합시켰을 때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유사한 요소들의 조합은 심리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반면 대립되는 요소들의 조합은 심리적 효과를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모티브가 조밀하게 배열되면 복잡하고 긴장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모티브가 띄엄띄엄 배열되면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한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모티브는 캐주얼한 느낌을 주며 깊이감을 느끼게 하고 입체적인 모티브는 복잡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큰 모티브는 활기차고 대담한 느낌을 주고 작은 모티브는 우아하게 보이며, 전면에 배열된 모티브는 안정적이지만 방향이 있는 모티브는 방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텍스타일디자인은 패션의 감성을 결정하며 또한 상품의 고품질화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2) 트렌드 분석

● 2005년 ~ 2006년도 F/W트렌드 분석 (출처 : 삼성디자인 넷)

I. 컬러

Urban Neutral

내추럴 트렌드의 컴백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중성색(Neutral color)의 확대로 나타났다. 지난 몇 시즌 동안 컬러의 부활과 함께 시즌 컬러 트렌드를 주도했던 브라이트 파스텔(Bright pastel)의 가볍고 밝고 경쾌한 요소는 현저히 축소되어 그 영향력은 도시적 감각의 뉴트럴 셰이드(Neutral shade)로 새롭게 대체된 것이 이번 시즌의 특징이다. 차분하면서 밝고 따뜻한 뉴트럴 컬러와 그린의 영향을 받은 시원한 뉴트럴 컬러의 활약이 기대된다.

Faded Pastel

파스텔 컬러는 부드러운 자연에서 영향을 받아 빛바랜(Faded) 차분한 색
맛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차분한 스킨 톤의 핑크에서 태양 빛을
머금은 로즈컬러는 깊이 있는 빈티지 로맨틱을 그려내고 그레이의 영향을 받
은 토탈컬러가 주목된다.

Cultural Deep

지난 시즌 깊이 있고 풍부한 가을 컬러 레인지는 컬처럴 무드(Cultural
mood)를 머금으며 보다 화려하고 깊이 있게 변화하였다. 땅에서 영감을 받은
오렌지와 브라운컬러의 활용은 심플하게 적용되며 마젠타(Magenta color)풍의
컬처럴 무드(Cultural mood)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mperial Depth

이번시즌 블랙이 중요하게 다시 컴백하면서 보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으
로 전개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어 컬러풀 다크(Colorful
dark)의 영향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빛에 의해 생겨나는 풍부
하고 화려한 효과와 함께 골드 컬러의 확대가 주목된다.

II. 소재

Fancy Velvet

- 페미닌(Feminin) 감성의 벨벳소재군
- 부드럽고 가벼운 터치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표면
- 투명함을 가미, 여성스러운 무늬의 프린트, 자수터치

Men's feeling

- 남성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우아한 소재(Elegant fabric)
- 전통적인 소재와 패턴의 전개
- 스트라이프(Stripe), 헤링본(Herringbone), 체크(Check)

Elegant Jacquard

- 레트로(Retro) 감각으로 전개되는 자카드(Jacquard) 소재군
- 20-30년대 감각의 절제된 패턴을 활용
- 차분하고 깊이 감 있는 색상의 조합이 포인트

Tweedy Tweed

- 컨트리 감각의 트weed(Tweed) 소재군
-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의 조합
- 전통적인 소재의 캐주얼한 변화에 주목

Touching Skin

- 다양한 스킨 효과의 소재군
- 입체감 있는 표면효과, 또는 코팅효과 소재
- 불규칙한 털이 많은(hairy) 소재

Classic Wave

- 바로크풍의 모티브의 전개
- 부드럽게 연결된 모티브, 고풍스러운 벽지문양의 활용
- 은은한 컬러감

Flower Garden

- 지난시즌에 이어 플라워 무늬는 소프트하게 전개하는 것이 특징
- 번진 듯한 효과, 불규칙한 배열과 자연스러운 구조에 의해 자연스러운 감성

Retro Graphic

- 레트로의 감성을 지닌 부드러운 감각의 그래픽 패턴
- 점(dot), 선(line)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모던함과의 조화

● 2007년 F/W 트렌드 분석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복고적이고 발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였다. 최근 레트로(Retro)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분위기로 떠오르면서 산업전반 뿐 아니라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끊임없는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향수로 레트로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과거로 돌아가고픈 심경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I. 컬러 트렌드(Color trend)

노랑계열(Yellow) - 녹색(Green)과 빨강색(Red)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노랑색(Yellow)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빨강계열(Red) - 주황색(Orange)이 약간 가미된 빨강색(Red)이 강세 지속하였다.

보라계열(Purple) - 파랑색(Blue)에 가까운 보라색(Violet)부상하였다.

파랑계열(Blue) - 남 보라색(Purple Blue)부분의 청 보라색(Cobalt Blue)이 유행색이며 전반적으로 파랑계열(Blue) 강세를 보인다.

녹색계열(Green) - 파랑색(Blue)이 가미된 녹색(Green)이 지속적인 추세를 보인다.

중성계열(Neutral) - 검정색(Black)이 강세를 띄고 금속성느낌의 회색(Metal Grey)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II. 컨 셉(Concept)

고전적 감각의 캐주얼한 표현,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회소성, 오래되고 소중한 가치가 리뉴얼 된 감각으로 제안되어 진보된 럭셔리 의미를 갖는다. 레트로 무드의 톤다운 된 컬러 레인지가 로열 블루 리얼 레드와 함께 개성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용된 신선한 형태와 컬러의 조합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유머러스한 표현, 어린아이의 정서로 보여지는 독특한 세계가 가볍고 산뜻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 도판 12 >

더불어 컬러들의 마일드한 전개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순수했던 지난 날의 추억, 고요한 미지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묘한 설렘이 영감을 준다.



Imperial Depth. Faded Pastel. Cultural Deep. Urban Neutral.

<도판8>

◎ 작품 제작 방법

I.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

최근 어패럴 섬유 염색 산업의 구조는 희소가치를 추구하는 고급화 양상의 시장과 다품종 소량 생산, 고부가가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몸과 마음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

하고자 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부각됨에 따라, DTP(Digital Textile Printing)기술은 이러한 시장 및 소비자욕구에 즉각 응할 수 있는 빠른 생산 체제 확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날염방식에 의한 것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염색방법에 의한 패션소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응용한 염색 산업은 앞으로 더 필요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날염은 흔히 DTP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섬유에 직접 프린트 하는 것이다. 디지털 날염은 크게 전사방식과 직접(분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사방식은 전사용지라는 매개체에 원하는 도안을 인쇄한 다음 이것을 다시 의류나 기타 피염물에 옮기는 것이다. 신축성이 적은 전사지의 특성상 원단에 직접 하는 것보다 정밀도나 색상재현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전사 적성을 높이기 위해 원지에 수용성 고분자와 기타 혼합물을 발라 건조시키고, 압착 롤러를 통과시켜서 광택을 내는 전용 전사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에 반해 직접(분사)방식은 잉크젯 분사를 이용, 디자인된 패턴이나 이미지를 원단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다. 잉크를 이용하는 모든 카트리지에는 각각 고유의 분사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압을 받아 카트리지에 달려있는 헤드가 프린팅 역할을 한다. 카트리지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압력을 가해 잉크가 매쉬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도록 적정압력을 유지시켜준다. 이때 필터는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잉크만 통과시켜 이미지의 발색도를 높여준다. 직접방식은 카트리지의 분사방식에 따라 다시 써멀(thermal), 피에조(piezo), 에어브러쉬(airbrush)로 구분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디지털 날염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

만 최근에는 전사용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단에 인쇄하는 분사방식이 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

디지털 날염에는 주로 DTP용 잉크라 할 수 있는 반응성 잉크, 산성 잉크, 안료 잉크가 사용된다. 반응성 잉크는 섬유 산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스크린 인쇄와 비교해 거의 동일한 컬러 밀도를 갖고 있다. 주로 전처리된 면이나 실크에 사용되며 100℃ 이상 스팀의 후처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수한 컬러, 높은 일광 견뢰도가 특징이다.

산성잉크는 수영복과 같은 스포츠 웨어에 흔히 사용된다. 디지털 날염 시 밝고 생생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실크와 나일론 라이크라에 사용되며 후처리 공정을 거쳐 견뢰도를 높일 수 있다.

텍스타일 프린팅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료 잉크는 화려하고 강한 컬러의 표현에 효과적이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시폰 등과 같은 얇은 원단을 프린팅 할 때 원단 뒷면에 종이 부착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 프린팅 후 반드시 후처리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스팀이나 세탁과정을 거치면 더욱 선명한 컬러를 얻을 수 있다.

II. 수작업

D T P 공정을 마치면 전통적인 수작업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뜨개질을 이용하거나, 구슬이나 비즈 등의 장식적인 요소들을 손바느질작업으로 완성하게 된다. 손바느질을 이용한 자수와 패치워크 등으로 복고적인 정서적 트렌드를 보여주게 된다.

◎ 작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과정

I. 모자 디자인

모자는 형태 면에서 본래 크라운(Crown)과 브림(Brim)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모자의 형태를 점, 선, 면, 형 등의 원리에 의해 기하학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조형물로 이해하고 작업하였다.

- 삼각뿔형태에서 얻어지는 단조로운 형태미와 이지적인 분위기를 결합하여 현대적 감각을 보여준다.
- 타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둥근 입체 조형물로 확대시킨 형태에서 미래적인 형상의 구조적 조형미를 강조한다.
- 크라운 부분을 변형시켜 모자의 유연한 곡선을 강조하며 수공예 장식적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면, 실크, 펠트, 인조섬유 등과 같이 다양한 소재를 독특한 부자재(깃털, 진주, 보석, 리본, 모피, 베일 등)를 응용하여 복고적인 분위기와 함께 예술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더불어 손뜨개질을 이용한 작업, 패치워크, 자수, 아플리케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은 독특한 재질감을 갖게 하는 등 자유분방하면서도 절제 있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II. 문양 디자인

자연적인 소재(꽃, 나비, 새 등), 인물 등 다양한 모티브를 응용하여 일러스트 화시커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2) 작품 분석

【작품 1】

기억 I



스웨이드(Suede), 단추 및 부자재 (레이스, 털장식 등), 220 × 290 mm, 2006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독특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성인계층을 타겟으로, 꼬깔 형태를 변형시킨 작품이다.

꼬깔의 형태를 유기적 라인으로 변형시킨 디자인으로 스타일 연출이 자유로운 모자이다. 2007년 F/W 트렌드에 맞추어 복고적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공예 작업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기억 I

- 다양한 소재와 레이스, 망사를 패치워크 한 위에 부자재(단추, 모피 끈)를 더하였다. 스웨이드 소재를 걸감으로 손뜨개방식의 니트 소재를 안감으로 더하여 겨울철 방한성의 실용기능성을 유념하였다.

중성색(Neutral color)의 유행이 더해짐에 따라 밀크 톤(Milk tone)의 흰색(White)계열로 부드러움을 더하였다. 흰색(White)계열의 색상은 소박하면서도 대범한 색상으로 분위기 연출이 다양하다.

기억 II



데님(Denim), 펠트지(Felt), 실크 사, 스웨이드(Suede), 부자재

220 × 290 mm, 2006

기억 II

- 톤 다운(Tone down)된 파란계열(Deep blue)의 데님(Denim)소재를 곱감으로 하여 그 위에 다양한 색상의 펠트 지(Felt)를 유기적으로 커팅하여 아플리케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더불어 가죽과 징으로 장식된 뱃지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 작업은 트렌드 감성에 맞게 손 바느질을 이용하여 실의 땀과 횡수를 조정하였다.

밑단에 스웨이드 소재를 이용한 러플을 달아 여성스러우면서도 큐트(Cute)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품 2】

바라보기 I



데님(Denim), 실크 사, 면 섬유(Oxford), 부자재(깃털, 구슬 등)

350 × 360 mm, 2006

【작품 2】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위한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한다.

기존의 해를 가리는 기능성에 삼각모형태를 과장하여 디자인한 모자는 조형성과 코사지로 포인트를 주어 장식성을 더하였다. 과감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타겟으로 하였으며, D T P 작업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프린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자이다.

바라보기 I

- 삼각형의 형태의 천 조각들을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어 디자인한 형태이다. 데님(Denim)소재와 D T P 작업방식으로 프린트되어 얻어진 소재를 매치하여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자이다. 캐주얼하고 실용성이 느껴지는 데님(Denim)소재는 사용감이 더해질수록 자연스러운 색을 발하는 섬유소재이다.

조각 천과 부자재(깃털, 구슬, 비즈 등)를 이용해 디자인한 코사지는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휴식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Pattern

바라보기 Ⅱ



가죽 소재, 실크 사, 스웨이드(Suede), 부자재(깃털, 구슬, 단추 등)

350 × 360 mm, 2006

바라보기 II

- 노랑(Yellow)계열과 갈색(Brown)계열의 부드러운 조화로 화려한 프린트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기존의 작은 코사지 장식에서 벗어나 모자 한 면 전체를 감싸는 듯한 크기의 코사지는 다소 과장된 듯 하게 디자인하여, 마치 자연의 한 부분에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어릴 적 따뜻한 기억에서 느껴지는 영감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 탄생시킨 모자이다.



Pattern

【작품 3】

인연 I



뜨개질 사, 펠트(Felt), 부자재(조각 천, 레이스 등)

220 × 900 mm, 2006

【작품 3】

어린 아이같은 순수함과 복고적 감성을 추구하는 2007 F/W 트렌드에 맞게 가공되지 않은 내추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뜨개질 형태의 모자와 목도리를 결합시킨 디자인 형태로 현대적 감각과 개성을 요구하는 20대 초, 중반 여성들을 타겟으로 제작하였다.

인연 I

- 뜨개질 사를 이용해 머리 부분부터 절개선 없이 길게 이어 짜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2007년 F/W 트렌드 색상인 보라(Violet)색을 거침없이 보여 주며 파랑(Blue), 녹색(Green)등의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과감함 귀 장식은 여성스러우면서도 과감한 장식적인 화려함이 느껴진다. 어릴적 즐겨먹던 솜사탕처럼 푸근하고 부드러운 펠트소재의 사용으로 동화적 감성을 보여주는 모자이다.

인연 II



뜨개질 사, 펠트(Felt)지, 실크사

220 × 900 mm, 2006

인연 II

- 펠트지를 각기 다른 크기의 원으로 잘라 손바느질을 이용해 다양한 모티브를 만들었다. 이마부분을 따라 장식함으로써 순수한 기억을 꿈꾸는 듯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채도가 낮은 노랑(Yellow)색상을 사용하여 복고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 위에 화사한 원형 모티브를 청량감있게 더해주어 따뜻함과 자유분방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자이다.

【작품 4】

연 가 I



스웨이드(Suade), 펠트(Felt), 부자재(스팽글, 모피 끈, 조각 천 등)

250 × 290 mm, 2006

【작품 4】

기존의 한국적인 멋을 보여주던 조바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이번 작품은 과거로의 동경이 느껴진다. 스웨이드(Suede)섬유와 데님(Denim)소재를 매치하여 퀴팅방식으로 숨을 넣어 누빔으로써 방한모의 기능성을 갖춘 모자이다.

모자테두리에 스팅글장식을 주어 이질적인 분위기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레트로 풍(Retro)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시각적 흥미를 즐기는 20대중반에서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디자인한 모자이다.

연가 I

- 2007년 F/W 트렌드 컬러인 중성색을 복고적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더불어 금속성 느낌이 나는 스팅글장식은 미적 특징을 재창조함으로써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응용하였다.
타원형을 단위로 변형시킨 모자의 형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조형미가 보여진다.

연 가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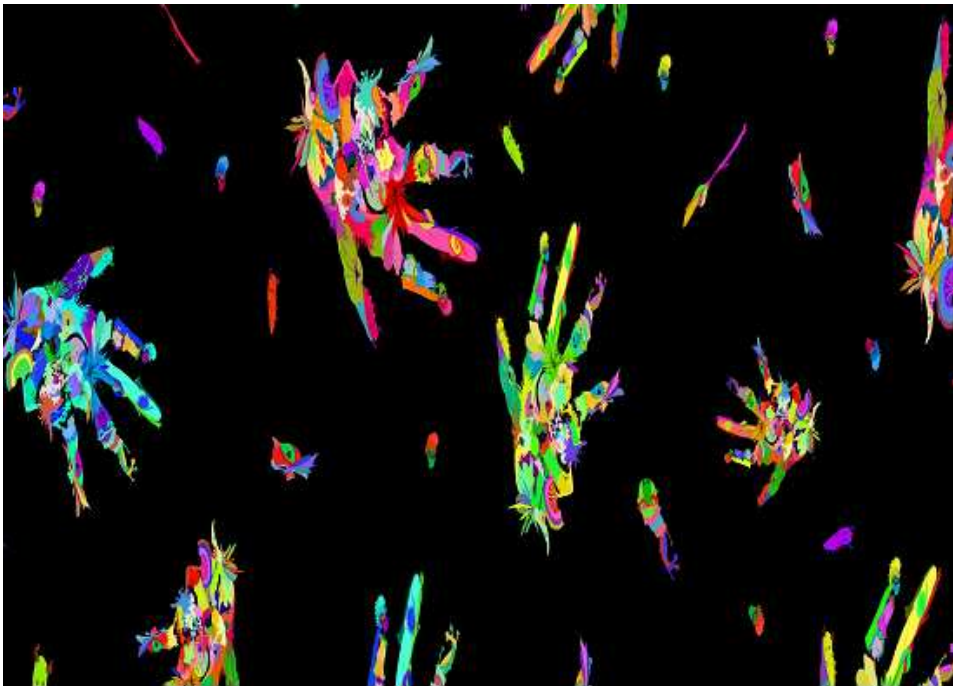
스웨이드(Suade), 실크 사, 부자재(스팽글 레이스)

250 × 290 mm, 2006

연가 II

- 스웨이드(Suede)섬유에 D T P 작업으로 프린트된 손바닥 형태의 프린트는 화려하지만 소재 면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을 더하였다.

이에 블랙 스팅글장식을 사용하여 더 대담하고 화려함을 연출한다. 모자 형태의 디자인을 간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모티브를 이용해 DTP로 제작한 섬유를 이용해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모자이다.



Pattern

【작품 5】

보고 싶다



니트 섬유, 펠트 지, 실크 사, 부자재(천연밍크, 진주, 단추)

210 × 210 mm, 2006

【작품 5】

짧고 단정한 머리형태를 즐기는 30대 후반부터 40대중반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인하였다. 기존의 모자의 브림(Brim)과 크라운(Crown) 모두를 축소시켜 머리의 둥근 면 만을 강조하였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유행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성색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작업방식이 보여지는 모자이다.

보고 싶다

- 니트 조직의 소재를 두상에 맞게 디자인한 위에 밉크 장식을 이용해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조형성이 느껴지는 장식을 주었다.

수공예방식을 자유로운 디자인과 결합하여 금사와 실크 사를 이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손 자수를 놓았다. 그 위에 비즈, 진주 장식을 더하여 고급스러움과 정교함을 더하였다.

수공예방식으로 제작 된 모자는 나만의 것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며, 감성적인 부분과 예술성이 담겨져 있다.

【작품 6】

꿈



면(Oxford) 섬유, 벨벳(Velvet) 섬유, 펠트 지, 실크 사, 부자재(스팽글, 단추)

260 × 290 mm, 2006

【작품 6】

현대 오뚜꾸뚜르 패션 쇼에서 보여질법한 창의적인 자유형 모자를 2007 F/W 트렌드 감각에 맞게 과감하고 독창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화려한 컬러 있는 머리카락 머리 형태의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20대 중, 후반을 타겟으로, 패션의 필수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매니아 (Mania)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모자이다.

꿈

- 고급스러우면서도 보온성이 느껴지는 벨벳(Velvet)소재와 D T P 작업을 통해 얻어진 섬유소재의 패치워크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으로 톤 다운(Tone down)된 검정(Black)색상에 다채로운 원색들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였다. 모자의 옆 부분은 D T P작업에서 모티브로 이용한 '새'를 응용한 장식성을 주었다.

D T P작업 방식으로 얻어진 섬유소재는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이용해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Pattern

【작품 7】

순수



뜨개질 사, 부자재(깃털, 진주 등), 200 × 310 mm, 2006

【작품 7】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의 감성을 달래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디자인된 모자는 어릴 적 썰매를 탈 때 썼던 방한 모를 재창조한 디자인이다. 호기심 많고 신선한 감성적 충격을 쉽게 받아들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를 타겟으로 하였다.

순 수

- 2007년 F/W 트렌드 컬러인 청록색(Cobalt green)의 뜨개질 사를 이용해 제작하였다. 두상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로 뒤집어쓰는 모자이다.

눈을 드러내는 부분에 술 장식을 뜨개질 사를 응용하여 볼륨감있게 표현 함으로써, 여성성을 강조하고 장식적인 면을 더하였다.

정수리 부분에 녹색(Green)의 뜨개질 사를 이용하여 꽃 장식을 뜨고 부자재(밍크, 깃털, 비즈 등)와 함께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뒷 부분에는 나비 모티브를 조각 천과 비즈를 사용해 디자인하여 시각적 흥미를 유발시킨 모자이다.



Back



작품3

【작품 8】

봄을 기다립니다.



뜨개질 사, 실크 사, 부자재(깃털, 밍크, 벨벳 리본, 진주 등)

200 × 130 mm, 2006

【작품 8】

클래식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이미지를 추구하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모자이다. 일상을 벗어난 짧은 휴가, 익숙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한때를 감각적으로 느낄 때 착용하는 컨셉으로 대중적이면서 신선하게 디자인 하였다.

봄을 기다립니다.

검정(Black) 뜨개질사로 두상의 형태를 감싸는 '비니' 형태로 디자인 하였으며 머리 뒷부분에 파랑(Blue) 뜨개질사로 이용해 꽃 장식을 주었다. 머리 윗부분의 평면적인 부분을 실크 사를 이용하여 일러스트화 시킨 모티브 디자인을 손 자수로 표현하였다. 머리 뒷부분에 부착된 꽃 장식은 부자재(깃털, 벨벳 끈, 비즈 등)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2007년 F/W 유행색으로 제안된 청 보라색(Cobalt Blue)으로 포인트를 준 작품이다.



Top



작품1·2·3·4·5·6·7·8

3. 상품 판매 전략

(1) 디자인 컨셉 (Design concept)

I. Image - 어린 아이같은 순수함과 복고적 감성을 이용한 따뜻한 이미지로 연출된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모자 디자인과 패턴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를 주어 고전적 감각에 신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II. Pattern - 대부분의 패턴들은 자연적인 소재(꽃, 나비, 새 등),인물 등 다양한 모티브를 응용하여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전체적인 패턴의 색상은 복고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강렬한 원색과 톤 다운된 레트로 색상이 보여 진다.

III. Color -



IV. Function - 예술성과 시장성을 살려 감성적, 동화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2) 타겟 (Target)

I. 대상

- 나이(Age)

- Main : 28~32세 여성
- Sub : 22~27세, 33~38세 여성

- 직업(Occupation) : 프리랜서, 방송인, 예술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생활 방식(Life Style) :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좋아하며, 현실세계에 안주하기보다는 과거와 미래로의 동경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행에 민감하며 자기만의 개성이 강한 감성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다.

II. 생산품 - 모자

III. 제작방법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 수작업

IV. 원단(Fabric)

- 면(Cotton): 천연 섬유인 면을 사용하여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피부를 숨 쉬게 한다.
-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촉감을 탄성력이 있고 따뜻하여 방한성이 뛰어나다. 또한 착용감도 뛰어나다.
- 그 밖에 스웨이드, 데님, 합성섬유 등의 다양한 원단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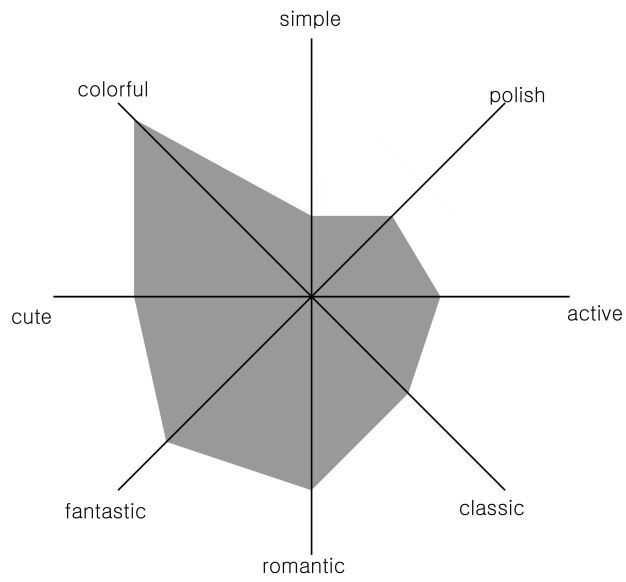
V. 가격(Price) - 15~20만원

(3) Design Source



<도판 9. 10. 11. 12>

(4) Image Positioning



(5) 마케팅 전략

현 패션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공예모자 매장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전시방법을 통하여 고급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I. 경쟁 브랜드

- KAORI : 일본어로 향기라는 의미로 모자가 패션과 거리의 조화를 이루며 느껴지는 도시의 향기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다.

디자이너 이형렬에 의해 만들어진 KAORI는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행패션의 중심인 압구정동 거리에 매장을 열었으며, 스타마케팅을 이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형렬은 디자이너 이상봉과 우영미의 2006년 가을,겨울 파리 컬렉션에 참가해 실력을 인정받은바있다.

매장내부는 철제장식물로 원도우전체를 인상적으로 장식하여 유니크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형렬이 일본문화복장학원에서 모자디자인을 전공하여서인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믹스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힐 수 있도록 주문 제작이 가능한 스페셜오더마케팅을 보여준다.

가격(Price) - 11~35만원



< 도판 13 >

- COMBLE : 예쁘고 독특한 모자를 원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쵡블이라는 매장이다. 프랑스어로 최고의 절정에 이른 상태를 뜻하는 쵡블매장은 얼마 전까지 개성이 강한 홍대거리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삼청동거리로 그 장소를 이전하였다.

쵡블의 디자이너 최혜정은프랑스에서 모자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매장의 인테리어를 위해 수입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녀의 손을 거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상업적인 공간을 아뜰리에 공간처럼 매장 내부를 앤틱한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대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장식성과 희귀성을 강조한 작품들로 그녀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티나 화보 촬영을 위해 대여하기도 하며, 디자인을 직접 요구해 맞춤제작도 가능한 마케팅 방식을 보여준다.

가격(Price) - 9~28만원



< 도판 14 >

- LUIELLE : 여성스러우면서도 엘레강스함을 추구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루이 엘매장이다. 프랑스어로 그와 그녀를 뜻하는 루이엘은 국내최초 모자디자이너브랜드이다.

루이엘의 디자이너 천순임은 프랑스파리의 모자전문학교 CMT의 동양인 최초의 졸업생이다.

2000년 종로구 화동에 본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듬해부터 연희, 일산, 청담 순으로 매장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갤러리아백화점과 내셔널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상태이다. 획일화된 모자 시장에 패션의 코드를 부여한 것이 성공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로맨틱에서 보헤미안까지 장르의 구분 없이 예술적인 모자를 선보이는 매장이라 할 수 있다.

가격(Price) - 11~50만원



< 도판 15 >

II. LOORY J.

- 매장위치 : 패션의 변화나 영향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 길에 매장위치를 선정한다. 5평~10평 남짓의 크지 않은 매장으로 아늑하게 작업공간과 판매 공간을 동시에 연출한다.
- 매장연출 : 고객이 들어오기 쉽고 보기쉽고 사기쉬운 점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 효율이 높은 매장을 만든다. 윈도우를 크게 설치하여 간접광으로 부드러우며, 아늑한 공간을 연출한다. 계절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 마케팅 전략 : 수공예적인 작업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의 상담을

도해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주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제작해주기도 한다. 잡지광고나 화보촬영 등 이미지가 맞는 곳에 협찬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수공예모자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대중성을 겨냥한 백화점의 컨셉 매장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매장을 연계하여 시즌 특가상품, 기획 상품 등을 만들어 좀 더 많은 판매기회를 만든다.

Ⅲ. 결 론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현대에는 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복식의 한 부분이 되어 착용되어져 왔으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전통적 관습이나 외양 등이 실용성과 장식성, 예술성을 강조하여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모자는 특수한 목적성의 개념을 넘어 현대패션디자인 산업에서 조형예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은 패션액세서리 없이는 복식에 나타내고자하는 자신의 메시지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자 스타일은 20세기의 예술양식과 결부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되고 의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패션에 표현되어지고 있다.

모자디자인은 소재와 형태 면에서도 디자이너의 창출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무한한 변화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행성이 우선시되는 패션산업에서 텍스타일디자인과 패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감성 및 욕구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자 디자인 외에도 소재에 감성을 표현하고 고급화시키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발도 중요한 몫이라 보여진다.

본 연구자는 모자가 현대 감각에 맞는 패션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길 바라며, 모자를 조형예술의 한 형태로 조명하고 있다.

바쁜 현대 사회의 지친 현대인의 감성을 동심이라는 따뜻함 감성과 함께 현대적 감각과 정서에 맞게 모자와 패턴을 디자인한 것이다. 복고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디자인과 색채를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풀고자하였다.

모자를 현대감각에 맞게 응용함에 있어 단순히 모방하여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조형물로서 이해하고 미적 특징을 재창조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는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을 창작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획일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현 패션흐름에 공예작업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만의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시키리라 믿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획일화되어있는 모자 판매시장에 고객의 감성을 맞춘 마케팅전략을 사용하여 패션의 화두로 떠오르는 장소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좀 더 부티크적인 유통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성을 보여주는 좋은 변화라 예상된다. 더불어 현대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매장을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유통과정의 변화도 패션의 한 변화라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간행물

- 김영임 외 공저,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교문사, 2001
- 김재필, 디지털 날염, 섬유기술과 산업, 2001
- 박혜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 재- 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 오희선, 이정우, 텍스타일 디자인 론, 교학연구사, 1996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현영필 역, 대건사, 1979.
- 이주연, 섬유디자인에 대한 감성 공학적 연구사례, 섬유기술과 산업, 1998
- 오희선, 이정우, 텍스타일 디자인 론, 교학연구사, 1996
- 유한김벌리, DTP Mater school 교재
- Browyn Cosgrave, Costume & Fashion, Check-mark Books, 2000
- John Peacock, Fashion Accessories: The Com-plete 20th Century Sourcebooks, Thames & Hudson, 2000
- Rasara, Accessory, Rasara: Publishing co, 1992

학위논문

- 김경희,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선영, 오프뚜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연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정임숙,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Hat Design with the mind of child

- Focus on My DTP Work and Hand made -

Lee, Jung Eu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mong various fashion items, the meaning of a hat is quite characteristic.

It expresses the personality, style and creativity of its wearer. Its designs have been changed by time since the 1900's, reflecting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Coming out of the common conception of it, a new way to interpret is introduced to describe its emotions.

Moreover, the value of digital print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attractive textile printing system to many apparel manufacturers because they wish to buy customized fabrics in spite of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color, speed, and print quality.

fashion manufacturers work with fabric manufacturers to develop exclusive fabric styles, patterns, and colors that will make the finished fashion product unique from competitors' products. This customized fabrics enable apparel makers to execute a significant minimum order.

In this study, the motive of nature is an essential subject at any time.

It is a warm and hopeful feeling but speaks of regret in the past.

A small production of various items is the key to create high added value in modern society along with that emotional marketing, combined with a hand-made producing method.